

# 02

## 작지만 큰 시작

### 속전속결, 마음 하나로 열린 ‘창립총회’

1963년 11월 22일,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자는 요구는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의사)와 보건관리요원에 대해 산업보건 관련 교육을 하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 삼청동의 국립보건원에서 열린 이 교육에 참가했던 교수진과 보건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요원들이 “산업보건 발전을 위해서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아 속전속결로 그 자리에서 창립총회를 연 것이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에 참석자 모두 마음 깊이 동의한 덕분에 총회는 무난히 진행되었다. 단지, 회의 초반에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는데 “총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처음에는 ‘창립총회’ 라는 명분으로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도중 누군가가 “예전에 대한산업보건

최영태 회장



조규상 부회장



협회가 결성된 바 있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잠시 혼란이 생기는 듯 했다. 일부에서 “그말이 맞다”는 동조의 의견이 나오면서 “그러면 창립총회가 아니라 재건총회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그러자 “새로운 멤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 창립총회가 옳다”는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회의장은 두 편으로 갈리는 듯 했다.

그러나 회의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대한산업보건협회라는 명칭 아래 산업보건 관계자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회의의 명칭은 딱히 결정된 것 없이 자연스럽게 다음 의제로 넘어갔다.

초대회장은 최영태 박사, 부회장에 조규상 교수(당시 가톨릭대 산업의학연구소장)가 선출되었고, 10명의 초대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선출되었다. 등기를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찾은 것은 해가 바뀐 1964년이었다.

### “이미 등록되어있는데요”... 반려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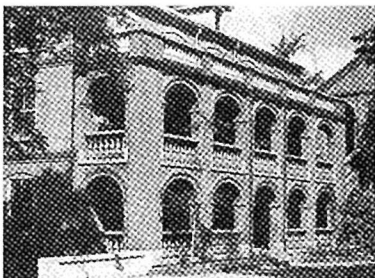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서류를 반려하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 명칭을 바꾸라”고 했다. 1963년 모인 멤버들이 협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으나, 등기 사실은 몰랐던 것이었다. 사단법인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1949년 당시 초대회장이 누구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한국전쟁으로 이사진들의 소식이 끊겼으며 납북과 월북, 혹은 일본으로 돌아간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만 풍문으로 떠돌았을 뿐이었다.

현재의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49년에 설립된 전신 협회를 등기말소시킨 후에 새롭게 등기된 단체이어서 이 두 기관이 어떤 연결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음 설립되었던 대한산업보건협회가 6.25동란으로 초대회장 최영태 박사가 협회 인감과 몇몇 이사의 인감을 보관하고 계셨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아주 무관한 기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창립총회 당시 임명된 임원진 명단과 재임기간

직위	성명	소속	재임기간
회장	최영태	가톨릭대 교수	1963. 11~1980. 5
부회장	조규상	가톨릭대 산업의학연구소장	1963. 11~1980. 5
이사	계린교	대한중석 의무실장	1963. 11~1977. 7
	현규환	동신화학 보건관리자	1963. 11~1967. 12
	이경근	대한석탄공사 보건관리실장	1963. 11~1971. 2
	노윤모	강원탄광 부속의원장	1963. 11~1967. 12
	김영소	춘해외과 의원장(석공족탁)	1963. 11~1967. 12
	박봉수	동일방직 부속의원장	1963. 11~1977. 2
	조대철	전매청 보건관리자	1963. 11~1967. 12
	김순구	충주비료 부속의원장	1963. 11~1971. 2
	원세재	경성방직 의무실장	1963. 11~1971. 2
	구필희	대한중석상동광업소 부속의원장	1963. 11~1967.12
감사	김충웅	금성방직 의무실장	1963. 11~1971.2
	박시윤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부속의원장	1963. 11~1971. 2

협회설립당시 사용하던 건물



## 1963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설 당시 내세웠던 목적

본회는 사업장 종업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산업을 발전시킴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산업보건사업의 기구 및 운영의 발전을 도모한다.
- 산업보건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요원의 활동을 지원한다.
- 산업장의 작업상 유해한 제 조건의 허용한계 기준을 심의하여 산업정책에 반영시킨다.
- 산업장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부상의 업무상 취급여부를 심의 건의한다.
-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근로자 건강진단, 직업병진료, 유해환경 판정 등 사업과 이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장려 또는 담당한다.
- 국내외의 산업보건기구 또는 단체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사업의 발전 향상을 도모한다.
- 산업보건사업의 상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관계기관에 수시 건의하여 기업관리자 또는 근로자 및 일반에게 산업보건사업을 선전 계몽한다.
- 기타 산업보건 발전에 관한 사업을 한다.

이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전제한 것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목적은 현재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던 것 같고, 현재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는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 가톨릭대학 도움으로 사무실 개설

우여곡절 끝에 1964년 7월 6일, 새롭게 등기를 마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대학 의학부 예방의학교실(명동성당 주교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협회의 업무는 가톨릭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들의 도움을 받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와 진폐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었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64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산업재해자와 진폐증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당면과제로 부상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협회는 이와 동시에 노동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안전보건실태 조사와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있어 협회가 각 기관을 지도하는 역할도 담당하며 산업보건의 개척주체로서 위치를 다져갔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설립허가서와 허가조건 (1964년 7월 6일 발급)

